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직자 재교육과정

서 진 호

서울대 식품공학과 교수, 교무부처장



1. 머리말

경제구조의 낙후성과 산업경쟁력의 취약성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최근 외환 위기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를 국가부도의 상태로까지 몰고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은 필연적으로 실업문제를 야기하며, 더욱이 고용조정과 기업합병으로 인한 대량해고로 연말에는 실업률 7% 이상, 실업자는 160만 명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어, 실업문제는 심각한 경제 및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다음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합 실업

현상'으로 인식된다. 첫째, 경기 순환주기상의 침체기에서 생산활동 감소, 투자 위축, 원가 절감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실업이 발생하는 이른바 경기실업(cyclical unemployment)이다. 둘째,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구조 및 노동수요의 변화과정에서 산업간 또는 전문분야간 노동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구조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및 필요한 기술수준과 보유한 기술수준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기술실업(technical unemployment)이다.

이와 같은 기본인식의 바탕 위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크게 경기실업에 대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대응과, 구조·기술실업에 대한 중·장기적

이고 간접적인 대응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기실업의 해결 또는 완화를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 및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틀을 토대로 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와 기업 등의 경제주체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한편, 구조실업 및 기술실업의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 및 교육 정책을 기본틀로 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즉, 고용유발 효과가 크면서 국제경쟁력의 비교우위가 높은 미래지향적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산업의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를 제고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체계의 구조조정, 교육시설의 개방 및 교육대상의 확대를 통해 산업간 노동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전문능력을 배양하며, 기술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창설을 지원하고, 실업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산업분야로의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활동에 대학의 교수진과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일이라 하겠다.

2.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운영 방향

국립대학인 우리 대학에서도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도에는 시행 가능한 방안

들을 먼저 시행하고, 제도의 개선이나 별도의 재원 또는 시설이 필요한 방안들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희망 기관별로 개설되 우선 산학협동 관련대학(예컨대, 공대와 경영대 등)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강좌의 성격에 따라 다른 단과대학이 지원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대학이나 단체의 그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교육대상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전문성 및 창의성의 제고를 통해 동일 분야에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실업자(부분 실업자 포함)와, 전문 분야의 신축적인 재교육을 통해 다른 분야에 재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강사진은 우리 대학 전임교수(기금교수 포함)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산하 기관이나 기업체의 임직원을 '초빙교수' 또는 '초빙 연구원'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개설과정은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의 인력수요가 높고 창업이나 재취업이 쉬운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공개강좌와 연계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기간은 우리 대학의 공개강좌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의 단기 교육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1년까지 허용하며, 교육시간은 개설기관이 융통성있게 정하도록 하였다. 교육시설은 기본적으로 본교의 강의실, 실험실 및 연구소의 시설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타기관이나 산업체의 시설과 장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수강료

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 교육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평가 방법은 기관별로 결정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 학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또한 도서관 출입증과 주차증 등을 발급하여, 교육과 연구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 과정'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공개강좌규정'과 '서울대학교 특별수강생 수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 운영방향의 틀 속에서 현재 시행중인 교육 프로그램은 공과대학의 '특별수강생 프로그램',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의 '고급설계 인력양성 교육과정', 경영대학의 '단기금융 과정'과 'Post-최고경영자 과정' 등이며 총 353명이 수강하고 있다. 각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운영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재교육 프로그램 사례

1) 공과대학 특별수강생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미취업 산업인력에 대한 전문기술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학사과정 및 대학원 강좌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할 수 있는 특별수강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한다. 지원자격은 대졸학력 이상의 미취업자(인문사회 계열을 포함한 전 분야)로 한정하고 강좌별 수강인원의 10% 이내에서 9학점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수 과목에 대한 평가는 당락(S/U)으로 한다. 이수한 과목에 'S'평가를 받은 수강생에게는 학장이 과목별로

수강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1998학년도 1학기에는 강의 특성, 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192명 신청자 중 148명에게만 수강을 허가하였고, 그 중 10명이 수강을 포기하여 현재 138명이 공과대학 학사과정과 대학원의 246개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전기공학부와 컴퓨터공학과와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이들 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취업이나 창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이 주관하는 산업연구원 활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별 수강생들에게 공학 관련 연구소의 '초빙연구원' 자격을 부여하여 교수의 산학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 고급설계 인력양성 교육과정

우리 대학의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는

(표 1) 고급설계 인력 양성 교육과정

- 원심형 공기 및 냉매 압축기 공력설계
- 유한요소해석 및 모델링 입문
- 냉동 및 열펌프 시스템 설계
- 전산구조해석 및 최적화
- 공력 및 공력소음 최적설계
- 설계론
- CFD
- 3차원형상 측정기술
- Tribology 및 회전축진동
- 진동소음해석
- 벌크성형공정해석
- 현대제어기술
- 판재성형공정해석 - 유압시스템설계
-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및 기술
- 로봇응용기술 및 설계
- 복합재료구조물 설계 및 제작
- 열교환기 설계
- 발전설비시스템 설계
- CAD II

설계기술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통상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1996년부터 '고급설계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원심형 공기 및 냉매 압축기 공력설계' 등 22개 과목에 과목당 5명씩 총 110명을 선발하여 주간교육을 실시한다(〈표 1〉 참조).

과목당 5일간(월~금) 매일 7시간씩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며 기계, 전자, 섬유, 석유화학,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는 제품 설계나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측정, 설계, 운전, 보수 유지하는 인력들에게도 설계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와 설계기술 자립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2〉 단기금융 과정의 교과목

분 야	과 목
재무·금융 (38개 강좌)	기업론
	투자론
	선물거래의 이해
	옵션의 개념과 응용
	금융기관론
	채권시장론
	국제금융시장
	증권분석
	인수합병
	거시경제의 이해
경제학 (16개 강좌)	미시경제의 이해
	화폐금융론
	인사관리
일반경영 (18개 강좌)	회계관리
	경영정보론
	마케팅
	경영전략
특강 (10개 강좌)	경영철학
	IMF체제 관련 특강
	일반교양학

3) 경영대학 단기금융 과정

재취업을 준비하는 금융기관 퇴직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 기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사회봉사 차원의 과정이다. 재취업 전의 틈새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하며, 학문적 분위기에서 삶의 활력을 찾고 정보를 교환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과정을 개설하였다.

금융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만 35세 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60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총 160시간 동안 재무·금융, 경제학, 일반경영, 특강 등 82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과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3〉 Post-최고경영자 과정의 교과목

1. 문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개혁 능력을 상실한 한국경제 · 대전환시대의 기업 경영전략 · 저성장기의 경영전략 · IMF 관리체제하의 한국경제 · 21C를 위한 기업의 준비 · IMF 원인과 대책 · 한국기업의 위기관리
2. 경영 환경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경제환경의 특장과 정보정책 · IMF 시대의 재정금융정책 · IMF와 노동시장 · 은행 경영전략 · 금융환경의 변화와 기회
3. 경영 혁신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과 전략경영 · IMF 환경과 인사·조직 관리 · IMF와 회계·재무 혁신 전략 · 마케팅과 국제경영
4. 경영 혁신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산 그룹의 Restructuring · 한국전력의 경영혁신

4) 경영대학 포스트-최고경영자 특별과정 (Post-AMP)

최고경영자과정(AMP)에서는 기업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금융·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IMF시대의 경영전략에 대한 강좌를 개발하여 왔다. 이러한 강좌를 AMP 졸업생에게도 개방하여 달라는 요청이 많음에 따라, AMP 수료생에게 새로운 경영환경의 특징과 이러한 환경변화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과정을 설치하였다. 자격은 AMP 수료생 중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35명을 선발하여, 1998년 4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9주 동안 34개 강좌를 총 54시간 야간에 운영하였다(〈표 3〉 참조).

4. 맺음말

이제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는 직업 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인력수용에 부응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재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연구기관에 확산될 경우 각 교육기관의 특성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프로그램(예컨대, 이론중심 대 실무중심, 첨단기술 대 재래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며, 이로써 실업자의 전문성과 경력의 차이에 따라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세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경우, 실업자 직업훈련의 새로운 모형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진호/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퍼듀대 교수를 지냈고, 현재 서울대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교무부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생물공정공학』 등이 있고, "Biological production of erythritol, a natural sweetener"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